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남아공 월드컵 D-15

그리스의 게오르기오스 카라구니스(오른쪽 두번째)가 26일(한국시각) 오전 열린 북한과의 평가전에서 안영학(오른쪽) 등과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리스, 수비허술… 세트피스 강했다

■ 허정무호 첫 상대 분석

한국전대비 북한 평가전서 2대2 무승부

태극전사 스피드로 높이 제압하면 승산

한국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상대인 그리스 축구대표팀이 베일에 가렸던 전력을 모처럼 드러냈다.

그리스는 26일 오전(한국시각) 오스트리아 알타흐 캐시포인트 아레나에서 열린 북한과 친선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이날 경기는 지난 3월3일 그리스 볼로스에서 치른 세네갈과 평가전(0-2 패)에 이어 그리스 대표팀이 올해 들어 치른 두 번째 A매치다. 그리스는 이날 그리스다운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리그를 끝내고 소집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선수들의 몸은 전반적으로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한국과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준비하는 그리스의 구상을 엿볼 기회였다.

◇**포메이션·베스트11 윤곽**=그리스는 월드컵 예선에서 주로 스리백으로 수비벽부터 두텁게 쌓은 뒤 전술을 펼쳤다. 하지만 오토 레하겔 그리스 대표팀 감독은 이날 포백을 바탕으로 한 4-3-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다분히 한국과 경기를 대비한 전술이다. 그리스는 남아공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할 약체를 만나면 포백을 꺼내들었다. 그리스로서는 한국도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의 제물로 삼아야 할 대상이다.

포메이션뿐만 아니라 한국과 맞대결에 나설 그리스 대표팀의 베스트11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최전방에는 테오파니스 게카스, 좌·우에 게오르기오스 사마라스, 디미트리오스 살핀기디스가 선발로 나왔다.

중앙 미드필더는 게오르기오스 카라구니스를 꼭짓점으로 알렉산드로스 차올리스와 카추라니스가 뒤를 받친 삼각형 구조로 배치됐다. 포백수비는 왼쪽부터 니콜라오스 스피로풀로스와 소티리오스 키르기아코스·반겔리스 모라스·루카스 빈트라로 꾸렸고, 골문은 미하일 시파키스가 지켰다.

후반 시작하면서 시파키스는 알렉산드로스 초르바스, 빈트라는 게오르기오스 세이타리디스 등 주전들에게 자리를 내줬다.

◇**장신 포백수비 허술**=그리스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체격이 좋다. 특히 수비진에 장신 선수가 많다.

이날 선발 출전한 모라스는 196㎝, 키르기이코스는 193㎝다. 후반전에 들어간 파파도풀로스는 186㎝다. 주전 오른쪽 풀백 세이타리디스도 185㎝다. 왼쪽 풀백 스피로풀로스(172㎝)를 제외하면 장대 군단이다.

이들은 확실히 제공권을 장악했다. 북한이 좌·우측면에서 어설프게 올린 크로스는 번번이 이들의 머리에 걸렸다.

하지만 분명 허점은 있었다. 민첩성이나 스피드가 떨어져 정대세·홍영조·문인국 등 북한의 빠른 공격수들에게 쉽게 득점 기회를 내줬다.

◇**세트피스는 위협적**=장신 선수들이 즐비하니 세트피스는 위협적이었다. 경기를 지켜본 허정무 감독도 "세트피스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다"고 밝혔다.

이날 그리스의 두 골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다. 세트피스 때 장신 수비수들까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 그리스의 세트피스를 더욱 위협적으로 만드는 것은 플레이메이커 카라구니스다.

그리스의 전담 키커인 카라구니스는 이날 두 골 모두 관여했고,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 시에도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킥으로 전방에 공을 배달했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사우디와 무승부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에서 한국과 함께 B조에서 16강 경쟁을 벌일 나이지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나이지리아는 26일(한국시각) 오스트리아 바텐스의 알펜스타디온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에서 전후반 90분간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2월 말 라르스 라예르베크 감독을 영입한 뒤 첫 경기에 나선 나이지리아는 존 오비 미켈(첼시), 오니에카치 아팜(니스), 야쿠부 아예그베니(에버턴) 등이 주요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았다.

나이지리아는 영국 런던으로 이동해 30일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연합뉴스

雙龍

이청용-기성용

"16강 자신"

"개인적인 목표보다 한국이 16강에 오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주축인 '쌍용' 이청용(볼턴)과 기성용(셀틱)이 26일(한국시각) 한국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첫 원정 16강 목표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는 결연한 출사표를 던졌다. 이청용과 기성용은 이날 독일 뮌헨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시즌까지 FC서울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코틀랜드 무대로 각각 진출한 이청용과 기성용은 대표팀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로 주전 자리를 굳힌 상태다.

프리미어리그 진출 첫해 5골 8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던 이청용은 대표팀에 와서도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좌우 날개를 이뤄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청용은 "대표팀 합류 후 (에콰도르·일본과) 두 경기를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고 경기 내용도 좋았다"면서 "공항에 환영을 나왔던 교민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기대하는 게 많은 만큼 즐거움을 주고 싶다. 조금은 피곤하지만 감수해야 할 일이다.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어 "평가전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형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월드컵 분위기가 실감이 난다. 빨리 월드컵이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속팀에서 8경기 연속 벤치를 지키다 대표팀에 합류해 경기 감각이 떨어졌던 기성용도 분발을 다짐했다.

기성용은 "컨디션은 저보다 감독님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경기에 이겼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제 목표는 한국이 16강에 오르는 것이다. 어차피 고지대에선 아르헨티나와 한 경기를 하는 만큼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자만심이 아닌 자신 있게 남아공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남아공 입성에 앞서 유럽 전지훈련에 돌입한 태극전사들이 26일 오전 전지훈련장인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로 가기 위해 독일 뮌헨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전진기지 오스트리아 입성

오늘부터 16강 담금질

72번째 한일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 전진기지인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에 입성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6일(한국시각) 독일 뮌헨 국제공항에 도착, 곧바로 차량으로 2시간 거리의 숙소인 오스트리아 노히슈티프트 야크트호프 호텔로 이동해 여장을 풀었다.

대표팀 주장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볼턴) 등 26명의 태극전사는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밝은 표정으로 공항에 마중나온 교민 10여명에게 사인을 해주고 기념 촬영을 함께했다.

선수들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7일부터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한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노히슈티프트는 인구 1만5000여명의 소도시로 해발 1200m인 데다 시간대 역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아 고지대 및 시차 적응을 위한 최적의 전지훈련 캠프다.

한국은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 아르헨티나와 해발 1753m의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른다.

대표팀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5시(한국시각 오후 11시) 피로 회복을 겸한 첫 현지 적응훈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북한전 그리스 진짜 그리스 아니다"

평가전 본 허정무 감독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첫 상대인 그리스의 경기력을 처음으로 직접 현장에서 지켜본 허정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상대에 대한 판단을 잠시 미뤘다.

허 감독은 경기 전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다. 북한과도 경기를 해봤고 북한 선수들이 우리랑 체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스가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일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그리스의 경기력은 허 감독의 기대를 따라주지 못했다. 허 감독이 "우리와 경기할 때도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리스가 남아공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보여줬던 제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허 감독은 "이 경기로 그리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 선수단은 모인 지 얼마 안 됐다. 오늘은 영 아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허 감독은 또 "스위스 및 우크라이나 등과 치른 유럽 예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높이를 활용한 제공권 장악이나 역습에서 파괴력 있는 모습 등은 초반 반짝하고 끝났다. 지난 3월 세네갈과 평가전(그리스 0-2 패) 때도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보다는 나았다"면서 "하지만 선수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치른 경기다. 선수들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최상의 그리스'를 엿볼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허 감독이 결코 헛걸음을 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는 스리백으로 수비벽을 두텁게 친 뒤 빠른 역습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전술로 정평이 나 있는 팀이다.

하지만 이날은 스리백보다는 공격적인 전술 구사가 쉬운 포백 수비를 들고 나왔다. 이는 그리스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전술 운용을 실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잘 준비된 팀"

그리스 레하겔 감독

한국의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첫 상대인 그리스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이 "한국은 잘 준비된 팀이라 조심해야 한다"며 경계했다.

오토 레하겔(72) 그리스 대표팀 감독은 북한과 평가전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해 북한을 평가전 상대로 골랐다"면서 "좋은 적수를 만났고, 오늘 경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독일 출신 레하겔 감독은 이어 "오늘 경기에 나서기 전 선수들에게 '우리가 6월에 만날 한국은 절대 쉽지 않은 상대다. 그들은 잘 준비됐고, 훈련된 팀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그리스는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맞붙는다.

레하겔 감독은 "북한도 (8강에 오른)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꺾은 팀이다. 월드컵 본선에 오른 팀은 모두 위협적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日대표팀, 스위스 전훈캠프로

"여전히 목표는 4강이다"

한일전에서 완패와 오카다 다케시(54) 대표팀 감독의 돌발스러운 '진퇴 발언'이 이어지면서 혼란에 빠졌던 일본 축구대표팀이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스위스 전지훈련 캠프로 출발했다.

일본 대표팀은 26일 새벽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전세기편으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대비한 전지훈련지인 스위스 자스페로 떠났다. 일본은 자스페에 머물면서 잉글랜드 및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을 치르고 나서 내달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입성할 예정이다. /연합뉴스